

- 본문 말씀 | 창세기 18장 16-26절
- 결단 찬양 | “예수 하나님의 공의”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어요. 여러분을 통해 만나는 모든 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라는 말이 있어요. 어느 나라나 그 나라만의 법이 있어요. 자국민은 물론이고 외국인도 그 나라에 있는 동안에는 정해진 법을 지켜야 해요. 나라별로 조금 황당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한 특이한 법이 있는데 몇 가지 소개해 줄게요.

미국 플로리다주에는 ‘방귀 금지법’이 있다고 합니다. 공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또 대중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밤 11시 59분까지 공공장소에서 방귀를 꾸면 체포당할 수 있다고 해요. 스위스에서는 금붕어, 기니피그, 앵무새 등 무리를 지어 생활하는 동물을 기를 때, 한 마리만 기르면 동물이 외로울 수 있기에 그러한 행동은 동물학대로 간주한다고 해요.

1

절취선

이탈리아에서는 옷을 잘 갖춰 입지 않고 다니면 40유로의 벌금을 낸다고 해요. 패션의 도시라서 그런 법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웃지 않고 인상을 쓰고 거리를 걸어 다니면 ‘스마일 법’에 걸려서 벌금을 내기도 한대요. 이탈리아를 여행할 때는 조심해야겠지요?

나라마다 중요한 가치관이 법에 담겨 있고, 그 가치관을 해치려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지켜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신기한 제도가 있어요. 서울 시장, 경기도 지사와 같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최고 책임자가 있듯이 황해도지사, 평안남도지사, 평안북도지사, 함경남도지사, 함경북도지사가 대한민국 안에 있다고 해요. 만약 갑자기 통일될 경우 그에 따른 행정 책임자로 세우기 위해 대통령이 임명해서 준비해 둔 것이라고 해요.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겠지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법이 있을까요? 또 어떤 중요한 가치관이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을 청지기로 세우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했지만 실패했어요. 시간이 흘러 노아 시대가 되었는데 사람의 죄악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셨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만 남기셔서 다시 한 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기회를 주셨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되었나요? 또 실패했어요. 사람들은 바벨탑을 만들어 하나님께 대항했어요.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흠으시는 방법으로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셨지요.

2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땅과 자손과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18절을 함께 읽어 볼까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창 18:18).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거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19절이에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창 18:19).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셨어요. 이 표현을 단번에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학자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그를 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녀와 후손을 가르쳐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따라,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살게 하려는 것이다.’ (메시지 성경, 창 18:19).

어떤 의미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따르는 생활 방식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후손에게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 생활 방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야 하며, 이웃에게도 친절하고 너그럽게 살아가야 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생활 방식이에요.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이어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를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심히 무거운 도시였는데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아주 크게 하늘에 들려온다고 말씀하셨어요(창 18:20). 소돔과 고모라에서 억울하게, 부당하게, 힘들게 착취당하는 자들이 하늘을 향하여 자신의 상황을 호소하는 행위를 뜻해요. 소돔과 고모라에 비인간적인 행위가 너무나도 많이 발생했던 거예요.

‘의와 공도’로 살아가지 않는, 다시 말해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지 않는 도시였어요. 이어지는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만났던 두 천사가 소돔에 사는 롯의 집에 찾아가 롯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줘요.

그런데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 들어가는 천사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롯에게 찾아와 그 천사들을 보여 달라고 해요.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시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과는 정반대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는 이렇게 악이 가득한 도시였어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청했어요. 18장 23절을 함께 읽어 볼까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창 18:23).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아무리 무거워도, 하나님의 의와 공도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그중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의인을 멸하실 것인지 하나님께 여쭙어 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24, 25절과 같이 구해요.

“그 성 중에 의인 오십 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 곳을 멸하시고 그 오십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나이까” (창 18:24-25).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인 50명이 있으면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요.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악인과 함께 죽이지 마시고, 의인을 살리시는 정의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람의 기도는 끝나지 않았어요. 만약 의인 45명이 있다면, 만약 의인 40명이 있다면, 30명이 있다면, 20명이 있다면, 10명이 있다면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도 말씀하셨어요. 의인 45명이 있다면, 40명이 있다면, 30명이 있다면, 20명이 있다면, 의인 10명만 있어도 용서해 주겠다고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해답을 창세기 19장 24, 25절을 통해 알아볼까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향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덮어 멸하셨더라” (창 19:24-25).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도 없었던 거예요. 결국 멸망당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은혜의 감격을 품고 정의와 공의로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생활방식을 따라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택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과 같이 모든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야 함을 말씀하세요.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 5~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면 좋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삶, 애통하는 삶, 온유한 삶,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삶, 긍휼히 여기는 삶, 마음이 청결한 삶, 화평케 하는 삶,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삶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이에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이에요. 이웃을 사랑하고, 나아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이에요. 나의 필요만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이에요.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런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복이 되게 하셨어요. 복의 통로로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믿음으로 고백하시나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다는 것은 큰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후에 복만 누리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해요.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 이웃에게 친절하고 너그러운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돌아보세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여러분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너그러운 삶을 살고 있나요?

이제 입학과 개학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돼요. 여러분이 일 년 동안 생활할 학급은 각자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야 할 삶의 현장이에요. 여러분의 반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해요. 같은 반 친구들에게 친절하고 너그러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곳이에요. 이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길 소망합니다.